

“새 시대, 공직자부터 각오 새롭게”

김지사, ‘6월 소통의 날’ 서
공직자 역할·재난 대응 강조

기관표창·혁신도정상 시상
김재흠 이사 재난 대응 특강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공연장에서 6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새 시대를 맞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도정 운영 방향,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정상 시상, 김관영 도지사의 소통 발언, 김재흠 지방공기업평가원 상임이사의 재난 대응 특강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도정 현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장마와 폭염 등 예측 불가한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적 복구 체계를 공직사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재난관리 교육을 개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김재흠 지방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총무과)가 국가기록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 수여 및 도정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혁신도정상을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평가원 상임이사가 ‘국가 재난 관리체계 및 주요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구촌 전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폭염, 장마 등 극한 기상 현상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난은 단순한 피해를 넘어 사회 불안과 갈등,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에는 중앙과 지

방의 유기적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규모에 따라 비상 대응기구가 가동되고, 평상시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선제적 대비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자치도(총무과)가 국가기록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됐으며,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2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은 교통정책과와 농촌사회활력과, 우수상은 예산과, 안전정책과, 산림자원과, 바이오방위산업과, 동물위생시험소에 각각 수여됐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직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

지역사회 상생 다짐·청소년 대상 제도 소개·음악회 등 진행

국민연금공단은 전북과 함께한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11일, 공단 본부(행복연금관 온누리홀)에서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고, 공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행사인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국민연금 미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 소통 클래스(알기쉬운 연금제도 및 청소년 재무설계) △지역주민을 위한 기념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기념식은 국민연금 명예홍보대사인 KBS 이승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기념식수, 전북 이전 정착 및 지역

발전 기여 유공자 표창, 전북 어린이교향악단 축하공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다짐하는 지역상생결의문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북 이전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미래세대 소통 클래스는 알기쉬운 국민연금제도, 청소년 재무설계 등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의 재무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익산 삼기중학교 전교생 참여)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강의로 마련하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10일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유공 포상 수상을 축하해주고 있다.

전북자경위, 현장 경찰관 노고 격려

익산 중앙지구대 방문... 흥기 난동 제압한 새내기 경찰관 표창 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경찰과 일선 경찰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연주 위원장은 특히 “오는 6월 30일 정년퇴직을 앞둔 오승욱 지구대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구대의 지역 특성과 주요 치안 이슈를 중심으로 현황이 공유됐으며, 익산역과 시청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치안 수요가 높은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근무 여건과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의 정책이 현장과 더욱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신임 순경 한찬들 경찰관이 지난 5월 6일, 조부모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던 손자를 신속하고 침착하게 제압한 공로로 자치경찰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연주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자치경찰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도민이안전한 전북 실현을 위해 정책 지원과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배추 환경 스트레스

대응 토론회와 평가회 열어

기후변화로 여름철 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연구·농업 현장 간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배추 환경 스트레스 대응 연구 토론회(세미나)와 현장 평가회를 연다.

민간 종자회사 연구진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배추 육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고온과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에 대한 실질적 답을 찾고자 기획했다.

먼저, 토론회(세미나)에서는 경북대 이재민 교수와 충남대 조영득 교수가 배추, 고추 등 주요 채소류의 환경 스트레스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꽃가루 세포(소포자)를 배양해 개발한 계통 외에 외국 도입 품종, 시중에 판매 중인 품종까지 선보여 기후 스트레스에 강한 계통을 선별하고 현장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도민 의견 듣는다

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공청회...국제교류·수중유산 발굴·지역문화 거점 구상 밝혀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소설캠퍼스에서 ‘전북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지정계획(안)을도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부안 해역을 포함한 1,570㎢ 규모의 국제교류지구 계획 수립을 앞두고 열렸으며, 유산관리과와 군산시·부안군 관계자, 학계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자치도는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국제 해양문화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난파선, 수중유물 등이 다수 발견된 이 지역은 과거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요충지로 평가받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속가능한 문화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정계획안은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부여된 특별 권한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자원 활용을 연계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실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5년 초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지정안 초안을 완성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국제교류지구는 총 1,570㎢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400㎢는 이미 수중문화유산이 발굴된 핵심 국제교류지구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나머지 1,170㎢는 항후 학술 발굴을 통해 유산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예비국제교류지구로 설정했다. 지정안은 구역 설정, 유산 분포 현황, 활용 방향, 지구별 발전전략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는 전북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제교류지구 기능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조대연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정원 기술사무소 UB대표, 양영관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소장,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민 의견 수렴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제교류지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유산관리과장은 “전북 해역은 해양문화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지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